

지역 소식 통

부안군의회, 농업인단체
등과 지역 현안 논의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5일 부안군 농업인단체연합회(회장 김형섭),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명숙)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농업인단체의 목소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부안군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과 의회, 단체 간의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부안군의회는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도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박병래 의장은 “농업인단체는 부안의 근간인 농업을 지켜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을 움직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소방서,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화재예방 총력

고창소방서는 11월 한 달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난방기 사용 시기를 앞두고 주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소방서는 △불조심 포스터 및 현수막 게첨 △비상소화전 점검 및 소화전 잔수제거 훈련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도민 참여형 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다문화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해 난방기기 안전사용, 전기·가스화재 예방요령, 대피요령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주요 도심지와 전통시장에서는 ‘소방차 퍼레이드’와 ‘119 화재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며 불조심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여성이 일하기 좋은 정읍’

하림 등 20개 기업·기관, 여성 고용 활성화 협약

정읍시가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는 11월 초까지 (주)하림 등 20개 기업·기관과 추가 협약을 맺으며 올해 총 39개소와 협력관계를 구축, 여성들을 위한 든든한 취업 지원망을 확충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읍새일센터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환경 조성과 여성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매년 20여 곳의 기업과 꾸준히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여성친화일촌기업은 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0월 27일 (주)하림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이어진 이번 신규 협약에는 (주)케이푸드정읍지점, 우원푸드농업회사법인(주), (주)더케이, (주)에코비즈넷, (주)지이스코리아농업회사법인, 비엔에너지, (주)밤농농업회사법인, (주)디에스판넬, (주)두손푸드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또한 정읍한국병원, 의료법인케이씨엘의료재단, 들꽃마을, 참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섬김의집요양원, 산한재가노인복지센터, 휴재가복지센터, 루씨어린이집 등 10개 복지기

관도 함께 힘을 보탰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들은 여성 인력 고용 확대와 양질의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여성친화경영 실천 의지를 담은 현판도 부착하게 된다. 정읍새일센터는 이들 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새일여성인턴십을 우선 연계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재직자 교육과 취업 연계 서비스 같은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정읍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역 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 강화

고창교육지원청, 고창고·인공지능고 방문 수능 응원·현장 소통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 4일 2026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고창고등학교와 인공지능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응원하는 현장 공감 소통 활동을 이어갔다. 고창고 교육지원청은 “고창고는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지역사회 인사들의 자부심과 애정이 담긴 학교로, 고창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성장해왔다”며 “교육지원청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I 중심 실무능력과 인성교육을 균형 있게 갖춘 미래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한 교육장은 학생들과 만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꾸준히 도전하며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말을 전했다. 아울러 탐입교사 및 진학 담당 교사들과 진로·진학 지도 현황을 공유하고, 입시 지도를 위해 현신하는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창고등학교 배준기교장은 “고창고는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지역사회 인사들의 자부심과 애정이 담긴 학교로, 고창을 대표하는 명문고로 성장해왔다”며 “교육지원청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AI 중심 실무능력과 인성교육을 균형 있게 갖춘 미래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한 교육장은 학생들과 만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꾸준히 도전하며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향사랑기부자 초청 제2호 비호텔 개막식 개최

부안군, 기부자 직접 참여해 사업 성과 체감

부안군은 최근 출판만 노을빛 정원에서 제2호 비호텔(Be Hotel)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

요!’의 일환으로 추진, 고향사랑기부자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호텔은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야생벌들을 위한 인공 서식지다.



단순한 설치물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담아 주민과 기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생태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2호 비호텔은 출판만을 상징하는 ‘원발농개’를 모티브로 디자인돼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상징성을 함께 반영한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지정기부에 참여한 기부자 중 다섯 가구를 초청해 본인의 기부가 어떤 공간으로 실현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체험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부안군은 이들에게 비호텔 분양증서’를 직접 전달,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내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는 등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정중한 예우를 표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 김종훈 경제부지사, 거점소독시설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5일 정읍시 거점소독시설(정읍시 용계동 739-2)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0월 21일 광주광역시 가리기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데 이어, 동절기 진입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전북으로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읍시 거점소독시설은 축산 차량의 출입 시 차량 소독을 실시해 병원체의



직접 점검했다. 또한 시 축산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방역관리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요청했다. 김종훈 부지사는 “방역은 축산업의 생명선으로, 현장 근무자 여러분의 노력이 도 전체 방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학수 시장은 “철저한 가축방역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변산면 지사협, 사랑의 밑반찬 지원 큰 호응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0회에 걸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1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이 하반기 들어 더욱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 본 사업은 정기적인 밑반찬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주기적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과 정서적 교류를 병행함으로써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 의견을 반영해 선호 음식 확대, 영양 밸런스 강화, 계절 맞춤 메뉴 제공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상자의 신뢰도와 만족감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 어르신은 “혼자 지내다 보니 식사가 늘 걱정인데, 이렇게 챙겨주니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정 맞춤 메뉴 제공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상자의 신뢰도와 만족감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대상 어르신은 “혼자 지내다 보니 식사가 늘 걱정인데, 이렇게 챙겨주니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